

일본 사회복지학의 형성에 관한 이해*

- 사회복지학 저술과 계보학적 관점 중심으로 -

최 옥 채

(전북대학교)

구로키 야스히로<黒木保博>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권력-지식관계에 중점을 둔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일본의 사회복지학이 연구자들의 개인 경험과 사회복지 관련 사회 상황에서 권력-지식관계가 작용하여 형성된 과정에서 드러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대표 연구자로 인정받은 일본 사회복지학 연구자 26명의 저술 40권을 원자료 삼아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기본 자료로부터 671개 개념을 추출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사회복지 관련 사회적 상황, 사회복지학 형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범주화해 각 영역의 특성을 개괄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범주화를 통해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의 계보학적 특성으로, 1)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사회복지학의 이분법적 형성, 2) 선교사 활동과 사회복지 전개, 3) 사회복지 본질 찾기와 연구자계보 형성, 4) 전쟁 수행 및 경제의 부침과 사회복지의 굴곡, 5) 사회복지 확대와 사회복지학의 비대화를 이끌어내 해석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학, 계보학적 관점, 권력-지식관계, 저술

*이 연구는 최옥채가 전북대학교 국외연구교수로서 일본 同志社大學의 객원연구원으로 파견되어 지도교수인 黒木保博와 공동으로 진행했고, 2008년 일본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유논문으로 발표 후 수정·보완하였다.

1. 문제제기

일본의 사회복지학 관련 저술은 1920년대 초반부터 선보이기 시작했다. 1923년에 나온 生江孝之의 『社會事業綱要』를 비롯하여 1926년 欠吹慶輝와 谷山惠林의 공저 『社會事業概論』과 1929년 海野幸徳의 『農村社會事業指針』이 출판되었다.¹⁾ 이후 사회복지학 관련 저술과 연구물이 쏟아져 나왔고,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일본 사회복지학의 기틀을 잡아나갔다.²⁾ 초기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미국의 사회복지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후 일본의 상황을 반영해 독자적인 학문을 형성하였다. 특히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15년 전쟁'과 경제의 부침(浮沈)으로 사회복지가 굴곡을 그리는 중에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전했다.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이 분야 연구자들의 저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연구자들 중에는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구축한 다양한 연구자 계보를 소개함으로써 사회복지학 연구자들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복지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이론을 세우기도 하였다.³⁾ 이들 연구자는 자신들의 저술을 통해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체계화한 것은 물론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하였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이들 저술은 대체로 사회복지학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비롯하여 실천학문으로서 전문성 따위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저술은 사회복지학의 고정된 본질, 전통, 인과성, 통일성 따위를 모색해 소개하는 데는 충분하나 일본 사회복지학의 역동적인 형성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⁴⁾

한편 일본 사회복지학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의 전개는 일본의 역사가 말해주듯 기독교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 타국을 점령하기 위한 장기간 전쟁,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급속한 경제부흥, 세계 초유의 고령화 따위와 밀접히 관련하기 때문에 기독교, 전쟁, 경제, 고령화와 같은 용어는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의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회복지학 형성에는 연구자들마다 지닌 학문적 배경에 의해 달리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일본의 사회복지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 간,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처한 상황들이 서로 작용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전쟁과 경제부흥은 순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이의 작용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이미 형성된 일본 사회복지학의 이면이나 더욱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

1) 엄밀히 말하면 이들 저술은 '사회복지학'을 규정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사업'에서 시작한 '사회복지'를 체계화하여 사회복지학을 형성하려고 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김학목이 1955년에 『사회사업개론』을 냈다.

2)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주요 자료로 단편적인 논문보다 저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연구자'보다는 '저술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자'로 통일하였다.

3) 예컨대 孝橋正一(1972), 吉田久一(1995), 一番ヶ瀬康子(1998), 古川孝順(2003)의 다양한 계보 중심 연구와 竹中理論, 孝橋理論, 岡村理論, 竹內理論을 들 수 있다.

4) 일본 사회복지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는 서구에서 들어온 사회복지학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이고 교과서적인 사회복지학에 중점을 두으로써 저술에 숨은 연구자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사회복지학의 형성과정을 간과할 수 있다.

는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각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자들은 사회 현상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바를 사회복지학 형성이라는 작업에 투영할 것이기 때문이다.⁵⁾ 그래서 연구자들의 개인적 상황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사회복지학이라는 지식을 형성하는 데 전략으로써 권력⁶⁾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회복지학이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연구자들의 개인 경험과 사회복지 관련 사회 상황에서 일어난 권력과 지식의 역동관계에 주목한 연구도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권력-지식관계(power-knowledge relationships)를 근간으로 한 푸코(Michel Foucault)의 계보학⁷⁾적 관점에서 일본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과정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이 일본 사회복지학을 단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와 사회 현상 간 역동관계를 밝히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에서는 일본 사회복지학을 연대기적으로 시기를 분류하거나 연구자들의 주장을 서로 비교해 이해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복지학 관련 주요 저술을 낸 연구자들이 사회복지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에 자신들의 경험과 사회 상황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전략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⁸⁾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사회복지학의 형성 과정은 지식-권력관계 맥락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라는 연구주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의 주장과 급박했던 사회적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일본 사회복지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형성되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이 형성 및 발전해온 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를 포함한 제반 사회현상과 주고받은 영향의 다양한 역동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일본 사회복지학에 관한 기존의 통시적(通時的) 이해를 탈피해 공시적(共時的) 이해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아울러 저술로 비교할 때 한국보다 약 30년이 앞서 전개된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살펴보는 것은 일본의 경험을 배우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학을 조망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¹⁰⁾

- 5) 후에 언급하겠지만 사회복지학이 형성되는 데 연구자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현상이 중요하게 작용함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강조하였다.
- 6) 여기에서 권력은 푸코가 강조한 것처럼 재산이나 지배적인 계급과 국가나 주권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책략과 전술과 기술과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Smart, 1985: 77).
- 7) 계보학은 푸코가 제안한 철학의 한 방법론으로 당시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Henri Bergson)과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철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태동하였다. 푸코는 앞선 철학자들보다는 더욱 엄격한 현실을 직시하여 낙관적 입장보다는 절망적 입장을, 개인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내적 힘보다는 외부에서 개인을 억압하는 외적 힘에 착안하였다(桑田禮彰, 1997: 5-26 재정리). 그의 계보학에서는 한 주체가 사회현상과 작용하는 것을 권력-지식론이라고 일컫고, 이는 주체나 진리가 지식과 권력의 연계 속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았다(서지원, 2005: 132). 이와 같은 연구의 관점은 연속성, 전통, 인과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유사성에서 벗어나 차별성에 중점을 둘 수 있다(이광래, 1990: 82).
- 8) 예컨대 정책성과 실천성이 양립하는 역동관계를 드러내어 일본 사회복지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또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 9) 통시적 이해는 현상을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선적 과정(單線的 過程)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공시적 이해는 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을 종합한 원형적 관계(圓形的 關係)에 중점을 둔다. 예컨대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시기별로 분류해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통시적인 이해이고, 일본의 사회복지학 관련 전체 자료에서 구성 요소를 찾아 이들 요소와 사회복지 환경과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공시적 이해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 관점

이 연구는 일본 사회복지학의 형성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개인적 상황과 사회복지 관련 사회적 상황의 역동적인 면을 파악하기 위해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을 적용하였다.¹¹⁾ 푸코의 계보학은 단순히 역사에 나타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혈통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 지식이 서로 강화작용을 통해 진리(주체)를 형성한다는 권력-지식관계에 근거한다(May, 1993: 51). 즉 푸코는 “지식은 권력의 도구로 작용하고, 지식은 모든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강화된다.”(Smart, 1985: 60)는 원리를 바탕으로 상황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¹²⁾ 이 같은 그의 입장은 “각기 철학은 각 시대의 근본적인 정신적 분위기(mentality)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桑田禮彰, 1997: 26)는 측면에서 당시 프랑스에서의 나치즘(1933-45년)과 같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계보학적 관점은 어떤 주장이나 사건 및 성질들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을 여러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이다(문종길, 2001: 201 재인용). 요컨대 계보학적 관점은 일본의 사회복지학 형성과정과 같은 특정 현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시각으로 간주할 수 있고,¹³⁾ 그 형성이 이루어진 맥락을 해명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정수복, 2007: 209 재인용).

계보학적 관점을 적용할 경우 어떤 주체나 지식의 규명은 구체적으로 원자료로부터 의미망을 추출하고, 이 의미망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지식과 작용한 권력의 관계를 따짐으로써 가능하다(한정돌, 2000: 342; 이광래, 1990: 80; 서지원, 2005: 132). 이 관점은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구성요소가 서로 관계하는 상황을 중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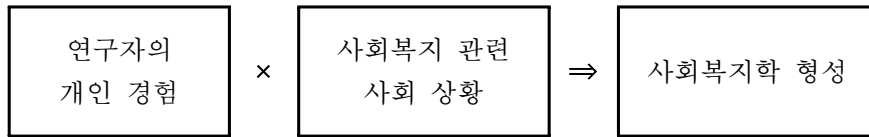
10) 이런 이유로 외국의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거나 사회복지학의 국제비교연구에 소중한 가치를 둔다. 이와 관련하여 所道彦(2005)은 외국연구나 국제비교연구의 의의로, 1)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 같은 사회 상황에 합당하게 이론 사회복지학을 사고하는 방법이나 체도를 이해함, 2) 외국의 사례를 통해 자국의 현상을 상대화하여 이해할 수 있음, 3) 타국의 경험에서 배움, 4) 국제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학을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11) 이는 사회사업이 주체적으로 발원한 것이 아니고 사회현상의 변화에 의해 따라 나오기 때문인데, 이런 실상은 孝橋正一(1957: 2)이 “사회사업은 자본주의사회의 역사적·사회적 필연의 소산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의 구조적 성질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 여기에서 푸코는 권력을 재산이나 지배적인 계급과 국가나 주권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해함으로써 “권력과 관련하는 지배의 효과는 주체에 의한 사용과 전개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책략과 전술과 기술과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것”(Smart, 1985: 77)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형성에 권력이 연구자들의 논리와 사회의 현실 따위를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13) 이와 관련하여 차태서(2007: 35)나 大貫隆史(2006: 44)는 계보학이 학문적 도구 및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나 연구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상을 이해하는 지침이나 이념 수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행하는 것에 집중한다. 예컨대 일본 사회복지학의 여러 저술 내용으로부터 언설을 추출하여 이들을 사회복지학적 맥락에서 의미망을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일본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분석 과정은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 필사한 자료로부터 개념을 추출하여 범주화하는 것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일본 사회복지학을 소개한 연구자들의 개인 경험(학문적 배경 따위)과 사회복지 관련 사회 상황(전쟁, 경제의 부흥과 침체 따위)에서 푸코가 주장하는 권력-지식관계가 작용하여 일본의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계보학적 관점에서 본 일본 사회복지학의 형성과정

요컨대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을 통해 일본 사회복지학을 역사적으로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을 탈피하여 부분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연구자의 개인 경험과 사회현상의 관계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이는 계보학적 이해가 과거를 밝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특정 상황이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자체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일본 사회복지학에 관한 계보학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권력-지식관계를 근간으로 일본 사회복지학의 실체를 형성하는 데 연구자들 개인의 특성을 포함한 외부의 관련 상황과 펼쳐온 역동관계의 특성을 찾아 해석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⁵⁾

한편 이 같은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은 일본 사회복지학이 역사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본의 사회복지학 연구는 역사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전통이고, 이를 중시하는 풍조이다. 이런 사정을 “사회복지를 그 역사의 균형 잡힌 관점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池田敬正, 1986: ii)고 한 점이나, “사회복지 자체가 역사성이나 역사의식이 배어 있는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하는 구체성을 지닌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을 드러내는 데 의의가 있다.”(一審ヶ瀬康子, 1994: 12)고 강조한 점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는 일본의 사회복지학이 형성·발전해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조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14) 푸코가 “계보학이 역사상 법칙이나 본질을 탐구하거나 과거 속에서 현재의 근거를 구하거나 인류의 진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여 일어나는 사건을 본래의 분산상태 대로 유지하기 위하는 데 있다.”(彬田敦, 1998: 52)고 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 이는 계보학이 세부 사건들을 해부학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점, 아울러 통일된 사고였던 것을 조각내는 계보학의 전략을 일종의 해석학으로 간주했다는 점에 근거한다(차태서, 2007: 36-37 재인용 재정리).

2)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일본의 사회복지학 관련 저술에 중점을 두어 수집하였다. 여타 논문들은 사회복지학의 특정 부분에 불과할 것이므로 사회복지학의 온전한 그림을 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헌조사는 일본의 연구자들이 저술한 사회복지학 저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논문이나 개괄서는 기본 자료를 보강하거나 합당한 저술을 찾거나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하였다. 실제로 일본의 사회복지학 역사에 관한 개괄서를 참고하여 일본의 사회복지학 관련 주요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사회복지학 저술을 근간으로 기본 자료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회복지학 연구자 4명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저술에서 사회복지학을 논의한 연구자계보를 만들어 소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즉 일본 사회복지학 관련 저술을 선정하는 데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목록을 참고했고, 여기에 우리 연구자들은 다른 문헌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연구자 5명을 추가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선정한 저술들은 제목이 '사회복지학'인 점에 중점을 두었고, 때로는 당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고려하여 저술의 제목이 '사회사업'인 것도 함께 반영하였다. 저술의 개정판도 찾아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였고, 공동저술은 저자 개인별로 정리하되 저술의 내용은 선정된 연구자의 부분만 다루었다. 저술 선정에서 기념논문집을 비롯하여 편저는 역시 사회복지학 전체의 일부일 뿐 아니라 이들 내용은 결국 연구자들의 주요 저술에 묻어나올 것이므로 제외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성, 출신학교, 전공, 재직대학 따위를 통해 이들의 개인 사항을 수집하였고, 나아가 저술의 서문에서도 연구자들이 사회복지학을 두고 하는 개인적 고민을 수집하였다. 기타 연구자들의 논문을 보충 자료를 따로 수집하였다.

<표 1> 선행연구자별 일본 사회복지학 연구자 상황

연구자	孝橋正一 (1972)	吉田久一 (1995)	一番ヶ瀬康子 (1998)	古川孝順 (2003)	이 연구
小倉襄二			●		
中垣昌美			●		
留岡幸助		●			
井上友一		●			
小河滋次郎		●			
生江孝之		●	●		●②(1)
矢吹慶輝					●①(2)
海野幸徳		●	●		●②(3)
風早八十二	●				
大河内一男	●	●			●①(5)
山口正		●			●②(4)
近藤文二	●				
田村米三郎	●				
木村正身	●				

吉田久一	●			●	●②(25)
孝橋正一	●	●		●	●③(10), (14)
眞田是	●			●	●①(24)
一番ヶ瀬康子	●			●	●②(22)
高島進	●			●	●①(15)
高澤武司	●	●			●①(27)
牧賢一					●①(7)
竹内愛二	●	●		●	●②(8)
岡村重夫	●	●		●	●①(9)
塚本哲	●				●①(11)
黒木利克	●				
竹中勝男	●	●			●②(6)
木田徹郎	●				●①(12)
岡田藤太郎					●②(13)
嶋田啓一郎	●				●①(17)
谷川貞夫					●①(19)
小川政亮				●	
仲村優一		●		●	●①(20)
三浦文夫				●	
窪田曉子				●	
右田紀久恵				●	
田端光美				●	●①(18)
京極高宣					●②(23)
松井二郎		●			
船曳宏保		●			●①(16)
古川孝順		●			●④(26)
池田敬正					●①(21)

· 孝橋正一(1972)는 연구방법에 따른 계보, 吉田久一(1995)는 이론가계보, 一番ヶ瀬康子(1998)는 초기 교육가계보, 古川孝順(2003)은 연구자세대계보로 규정해 소개했음.

· ●는 각 연구자가 참고한 연구자, ○안 숫자는 저술 권수, ()안 숫자는 이 연구의 기본 자료 정리순서로 곧 연구자를 뜻하며 모든 개념들에 표시했음.

3) 자료 분석

연구자들은 수집한 자료를 읽으며 일본 사회복지학의 주요 개념을 추출하였다. 일본 사회복지학의 단초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찾아내고, 일본 사회복지학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실체를 찾아 의미 있는 개념을 뽑아냈다.¹⁶⁾ 이후 이들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개인 경험, 사회복지 관련 사회적 상황, 사회복지 형성이라는 3영역으로 구분하여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범주화한 것을 권력-지식관계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졌다.

16) 이의 구체적인 방법은 한점돌(2000: 344)이 강조한 바처럼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 방향으로 일본 사회복지학의 구성 요체를 찾아가지 않고, 현재를 출발점 삼아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현재와 이질적인 부분에 주목하여 이들의 특성과 변화를 형성한 과정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첫째,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소개한 저술 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일본의 사회복지학에 관한 방대한 자료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들의 목록을 참고하였다. 실제로 앞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자료로부터 26명을 선정해 이들의 저술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단 孝橋正一가 20년 간격을 두고 저술을 내 그의 저술을 (10)과 (14) 둘로 나누었다. 각 연구자들의 저술은 1권 많게는 4권까지 선정되어 총 40권이였다.

둘째, 확보한 저술로부터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든다. 이 기본 자료는 연구자들의 개인 사항, 저술의 차례, 서문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A4 용지 200쪽 분량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읽는 중 새로운 연구자를 찾아 보완하고, 관련 논문도 새로이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부터 계보학적 관점을 견지하며 연구자들이 저술에서 새롭고 특이하게 강조하는 부분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찾아내려고 노력했다.¹⁷⁾

셋째, 기본 자료를 읽고 주요 개념을 추출한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기본 자료에서 총 671개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들 개념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개인 경험 49개, 사회 상황 163개, 사회복지학 형성 459개로 분류한 후, 영역별로 범주화하였다.¹⁸⁾ 세부적인 작업 이외에도 전체 분석 작업을 3차례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표 2> 영역별 범주화

개념 묶음	범주	영역
연구자들 간 거리, 편향	차이 경험	개인 경험 (49)
사회복지 현장 경험, 종교 관련 활동, 공공기관 활동, 연구소 활동, 전쟁 체험 강조	현장 체험	
사회복지학 전공, 사회복지학 외 전공	사회복지학 전공 여부	
외국 시찰, 외국 유학	외국 경험	
서구 영향, 기독교 영향, 종교기관의 개입	외부 영향	사회 상황 (163)
사회복지의 팽창, 산업화, 농촌문제 대두, 전쟁, 사회병리, 국민 생활의 특성	사회복지 대두	
경제변동, 전환, 지방화,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변화	
합리성 대두, 사회복지사 권익 강화, 참여권 확대, 국민의 의식화, 시대사조	의식 변화	
정부의 체계 구축, 정부의 역기능, 정부의 압박, 정부의 회유	정부의 대처	

17) 이와 관련하여 이광래(1990: 96)는 “계보학은 단초와 연관된 모든 자질구레한 우연한 사건과 사실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 사회복지학 형성 영역의 범주화에서, 특히 개념 묶음을 범주로 만드는 작업은 분리의 한계가 있어 융통성 있게 하였다. 예컨대 ‘정체성’과 ‘실천’ 범주에 있는 ‘사회복지 원리’와 ‘사회복지실천 방법’ 개념 묶음은 분석자에 따라 ‘개념’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사회복지실천 윤리, 사회복지 사상,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학 형성 (459)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시설운영	사회복지 제도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 기능, 사회복지학 개념, 사회복지 이론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 전문직,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 정체성, 사회복지 원리	사회복지 정체성	
사회복지 영역, 사회복지사업 유형, 국제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영역	
사회복지 성립, 사회복지의 전개,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 역사	
사회사업 실천, 사회복지 실천 방법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연구, 사회복지학 연구, 미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학)에 관한 논의, 사회복지(학) 과제, 사회복지(학) 비판	사회복지 연구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 교육	

· () 안 수는 분석에 활용한 개념 수이고, 구체적인 개념들은 이후에 나올 것이므로 생략함.

넷째, 연구자의 개인 경험과 사회복지 관련 사회 상황과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 3영역에서 일본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과정의 특성을 계보학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실제로 일본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과정에서 드러난 3영역의 개괄적 소개를 비롯하여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과정의 계보학적 특성 5가지를 이끌어내 해석하였다.

한편 전체 과정은 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본 자료 외에도 관련 저술의 일부분이나 『月刊福祉』와 같은 데서 얻은 것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3. 문헌고찰

1)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에 관한 이해는 먼저 사회복지학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¹⁹⁾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의 “개인 및 집단이 만족하는 생활수준과 건강상태에 도달하도록 원조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제도의 체계”(岡村重夫, 1968 재인용),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사회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이 여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나 제 시설을 통해 행하는 체계적·조직적인 노력”(岡田藤太郎, 1968: 23), “구체적인 인간 제 개인의 생활 곤란으로부터 회복이나 더욱 좋은 생활의 실현을 원조하는 인간 활동”(船曳宏保, 1993: 51)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자의 시점(視點)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열어놓았다.

19) 사회복지학에 관한 내용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이후 내용에서도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원자료 삼은 연구자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에 앞서 활용된 사회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의 서비스라는 형태를 취해 실시하는 원조활동이며 이는 Casework, Group Work, Community Organization과 같은 전문 방법”(岡田藤太郎, 1968: 23)을 일컫고,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각기 “제도정책의 측면과 전문직업적 행동체계 측면”(岡田藤太郎, 1977: 135)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사회복지를 정의한 최초의 공식 문서는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이고, 1951년에 성립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하였다(岡村重夫, 1968: 3). 이 같은 일본의 사회복지지는 ‘근대적인 인권사상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池田敬正, 1986: 30).

사회복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학으로써 사회복지학은 타 학문에 비해 역사가 짧고, 그래서 연구자들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분명한 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室田保夫(2003: 5)는 “경제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계에 속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가 심히 일천한 학문이고, 더구나 신학이나 철학, 의학과도 비교하면 그것은 확연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의 ‘얇의 구조’도 의문을 갖는 상황이다.”고 하였다.²⁰⁾

한편 사회복지학을 문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저술이나 논문 및 관련 문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한 역사를 비롯한 실상에 관한 자료도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에서 중시하는 ‘현장’이나 ‘실천’이라는 단어 안에는 역사적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室田保夫, 2006: 1).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회복지학 저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논문이나 기타 자료를 참고해 기본 자료를 만들어 보완하였다.

2) 선행연구

일본 사회복지학의 저술은 방대하게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일본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연구자들 간 논쟁과 연구자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연구 및 소개한 문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²¹⁾ 일본 사회복지학에 관한 논쟁의 첫 시도는 1952년부터 약 1년간 ‘사회복지사업 본질 논쟁’이 있었고,²²⁾ 다음에는 1953년부터 약 1년간 ‘생활보호서비스 논쟁’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의 확충과 함께 사회복지학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었다. 이 같은 연구들은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저술의 계보에 따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²³⁾ 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학 저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이 같은 논의는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점도 있다(三浦文夫, 1974),

20) 사회복지학에 앞서 사회사업학은 “보편적 필연적인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회사업 현상의 인과관계에서 개연성 혹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山口正, 1934: 55)는 주장도 있다.

21) 여기에서는 방대한 문헌인 만큼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일본 사회복지학의 다양한 계보에 나타난 문헌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22) 특히 이 논쟁은 일본에서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의 한 학문분야로 뿌리를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박광준, 1996: 193).

23) 이들 저술에서 계보학의 정확한 의미를 살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연구자들의 사회복지학 저술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한편 孝橋正一(1972)는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논한 18명 연구자를 파악하고 비판하였다. 그는 사회과학적 방법, 초역사적 방법, 절충론적 방법 3가지 연구방법론을 분석틀 삼아 실시하였다. 岡田藤太郎(1977: 111-122)는 전후 일본의 사회복지학 이론가로 竹中勝男를 비롯하여 5명, 연구자로 一番ヶ瀬康子를 포함해 5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이론 및 주장이 서로 비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소개하였다.²⁴⁾ 松井二郎(1992)는 사회복지 이론과 관련하여 竹中이론이 사회민주주의 입장을, 孝橋이론이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岡村이론이 기능주의 입장을, 嶋田이론이 통합론 입장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고, 이들 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이론의 통합적 시점을 제시하였다.²⁵⁾ 古川孝順(1994: 27-28)는 일본 사회복지학의 계보는 정책시설체계와 원조기술체계를 이루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쟁 후 일본 사회복지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의 관점과 방법 및 연구자의 위치와 성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시도하지는 못하고 전후 일본 사회복지연구 계보의 조감도를 그리는 수준에서 특징적인 이론의 논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그는 전쟁 후 일본 사회복지학 연구자 세대론을 주장하며 전환기를 맞이한 일본 사회복지 이론의 재구축을 강조했고, 특히 사회복지 본질 논쟁에서 정책과 기술의 분리나 통합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의 연결을 주장하였다(古川孝順, 2004: 19-22). 최근에는 室田保夫(2006)가 편저한 근대 일본 사회복지의 흐름을 소개한 것이 있으나, 자선·구제사업 시대와 사회사업·사회복지 시대로 구분하여 인물 중심으로 이들이 펼친 사업을 소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일본 사회복지학의 연구 내용 및 연구자의 계보나 세대를 정리하고, 아울러 각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비판하여 일본 사회복지학의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들 연구는 일본 사회복지학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과정과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전체 일본 사회복지학을 구성하는 과정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²⁶⁾ 왜냐하면 이들 논의는 사회복지학의 근본을 한 가지로 두고 가치론적이고 연대기론적 질서에 중점을 두어 연구자나 연구자들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요컨대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형성하고 발전시켜온 학자들의 계보에 관한 문헌은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 사회복지학이 형성되는 사회적 상황 따위와의 역동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저술에 근거하여 일본 사회복지학의 형성 과정을 각 연구자 및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상황들 간 역동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일본 사회복지학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4) 岡田藤太郎(1977: 120)는 竹中勝男理論, 孝橋正一理論, 岡村重夫理論, 竹內愛二理論, 木田徹郎理論과 一番ヶ瀬康子, 嶋田啓一郎, 小倉襄二, 小川政亮, 浦辺史의 주장을 소개하였고, 아울러 “이들 제 이론을 대조하는 노력이 없이 균용할거하는 상태는 실천의 목표가 되는 일반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이다.”고 지적하였다.

25) 특히 松井二郎(1992: i)는 여기에서 사회복지 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생성·변천 과정을 넓은 사회의 구조적 영역에 관련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 맥락 가운데 사회복지제도가 완수한 제 기능을 분석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연구 영역을 의미하고, 이 같은 연구가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침체했다고 하였다.

26) 이 같은 한계는 연구의 전체 과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적용한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옳다.

27) 예컨대 연구자들 중에는 시기를 달리하며 다른 입장에서 저술이나 연구물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연구자를 특정 시기에 놓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결과

1) 개괄

(1) 연구자 개인 경험

이 연구에서 원자료 삼을 저술의 주요 연구자로 선정된 26명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힌 것에서 이 연구자들 개인 경험으로써 '이론가와 실천가의 오해'를 포함해 총 49개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들 개념을 요약하여 <표 3>과 같이 '차이', '현장 체험', '사회복지학 전공 여부', '외국 경험'으로 범주화하였다. 원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1) 전체 연구자 26명 중 2명이 여성으로 대부분 남성이었다. 2) 연구자들은 1867년부터 1942년에 태어났고, 1950년대 이후 태어난 연구자는 없었다. 3) 저술에서 밝힌 연구자들 중 사회복지학 9명, 경제학 4명, 사회학 3명, 사학 2명, 신학과 철학이 각 1명, 문학부라고만 한 연구자가 3명 나머지 3명은 밝히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첫 저술을 낸 것은 1956년이었고, 이전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7명의 연구자들이 저술을 냈다. 4) 1950년 이전에 저술을 낸 연구자가 6명이었고, 이들 중 2명이 행정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1950년 이후에 저술한 연구자 중 3명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었다. 5) 외국에서 유학을 했거나 시찰이나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는 6명이었고, 이중 3명은 1950년 이전에 저술을 냈고, 나머지 3명은 1972년 이전에 저술을 냈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개인 사항으로 초기 사회복지학을 형성하는 데 사회복지학보다는 타 분야 전공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은 사회복지학을 형성함은 물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들과 논의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은 "경제학부를 졸업해 질문 받음"(20),²⁸⁾ "사회복지학 전공자로부터 배움 여부에 따른 정체성 고민"(26)과 같은 개념들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서로 관점을 달리하는 가운데 각자의 사회복지학을 제안함으로써 권력-지식관계가 작용함을 엿볼 수 있다.

28) “ ” 안은 범주화에 활용한 개념이고, () 안은 연구자 고유 번호이다.

〈표 3〉 개인 경험의 범주화

개념	개념 묶음	범주
이론가와 실천가의 오해(3), 포근한 직관적 이해 필요(13), 사회정책학자들의 대거 활동(14), 연구자 간 융화 부족(17), 사회복지학 전공자로부터 배움 여부에 따른 정체성 고민(26)	연구자들 간 거리	차이 경험
자기방식의 부분과 형식 강조(3), 미국적 편향으로 비판 받음(8), 사회복지 관심은 실천에 있음을 강조(16), 사상에 흥미를 둠(25)	편향	
감옥개량활동(1), 세틀먼트활동(19)	사회복지 현장 경험	현장 체험
교회활동(1), 불교정도종 소속(2), 선교사와 일본인이 함께 활동(6), 구제활동(19), 아시아구제연맹활동(19),	종교 관련 활동	
내무성 근무(1), 중학교 교감(4), 노동문제 조사(4), 근무 경험에서 얻은 자료 반영(4), 참의원 활동(6), 시설 및 행정가 활동(12), 사회복지조사(16), 전문위생상담원(16)	공공기관 활동	
사회사업연구소 운영(3), 사회복지연구정보센터 운영(23)	연구소 활동	
전시 체험 강조(20), 일·중전쟁기 세틀먼트 봉사활동(25)	전쟁 체험	사회복지학 전공 여부
문학부 졸업(9), 사회사업학과 졸업(16), 가정학부 사회복지학과 졸업(18), 사회사업학과 노동학 전공(22), 사회복지학부 졸업(27), 사회복지학과 졸업(26)	사회복지학 전공	
신학부 입학(1), 정치경제학 전공(3), 사회학 전공(4), 경제학 전공(5), 경제학부 졸업(10), 사회학과 졸업(11), 경제학의 규정에 기반(14), 서양사학과 졸업(15), 경제학부를 졸업해 질문 받음(20)	사회복지학 외 전공	
미국시찰(1), 영국/프랑스/러시아 사회사업 조사(2), 국제 회의에 다수 참석(8), 미국 연수(17)	외국 시찰	외국 경험
미국유학(단기)(1), 미국 대학에서 사회사업학 전공(8)	외국 유학	

· () 안 숫자는 원자료 정리 순서로 연구자를 표시함.

(2) 사회복지 관련 사회 상황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 자료로부터 추출한 전체 687개 개념에서 사회적 상황의 범주화에 쓰인 개념은 163개였다. 이들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 ‘외부 영향’, ‘사회복지 대두’, ‘패러다임 변화’, ‘의식 변화’, ‘정부의 대처’ 5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들 범주는 각기 여러 개의 개념 묶음으로 형성되었는데 대체로 전쟁을 포함한 정치경제적인 면과 연구자들이 지닌 시류적 의식(시대사조)과 국민이 품는 의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욱이 1931년에 발생한 만주사변부터 일본이 항복한 1945년까지 일본이 수행한 ‘15년 전쟁’은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 시기에 군사원호법(1937년)을 비롯하여 사회사업법(1938년), 의료보호법(1941년) 따위가 제정되어 사회복지가 ‘후방 국민의 생활대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감독도 일층 강화되었다(種家新, 1998: 72-73). 이와 같은 전쟁의 영향은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길항관계”(13)에서 사회복지의 “대상과 방법이

분명해야 하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13)이 있어 “사회복지 개념의 혼란”(14)이 오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사회복지학의 운동론적 지향”(14)과 “역사학 소양 필요”(13)를 강조하고, 결국 “대상·정책주체·운동의 변증법적 상호관계에서 모순을 사회복지가 개입”(15)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전쟁과 경제정책 같은 사회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간 권력-지식관계가 작동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가 전략적으로 규제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표 4> 사회 상황 범주화

개념	개념 묶음	범주
서양문화 이입과 섭취(6), 미국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이념이 실험됨(CHQ 정책)(26), 전후 복지개혁(CHQ의 대일 복지정책)(26)	서구 영향	외부 영향
기독교를 금기시함(6), 기독교는 종교보다 사조나 정신구조로 받아들여짐(6), 기독교 선교사 활동 영향(6), 경공업 중심 산업혁명의 사회문제에 기독교적 개입(6), 불교는 일본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13)	기독교 영향	
전문사회사업과 종교(8), 종교관계 사립대가 많음(13), 생명운동(15)	종교기관 개입	
전후 사회복지가 단기간에 알려짐(11), 대학원 확충 필요(13), 제도들의 분화와 유기적 복합화(13), 사회복지의 과대한 영역화(14), 주민복지운동(17), 1960년대 이후 사회복지 공급시스템의 유동화(3섹터 등장)(26), 보건의료와 밀접하나 연계가 어려움(26), 사회복지시설 개혁 과제(26), 15년 전쟁 하의 후생적 과제(27)	사회복지 팽창	사회복지 대두
농업경제 하향(6), 노동자계급의 과제(14)	산업화	
농촌 생활환경 정비(18), 농업에서 고용관계(18), 농지개혁 후의 영세 농민(18), 고도성장 하 상대적 궁핍(18), 출농자의 복지문제(18), 농민고령화(18), 계절적 성격이 강한 출농(18), 농업 위기와 농민의 궁핍(18)	농촌문제 대두	
지나사변(1937년)의 전시통제경제가 사회사업에 영향(5), 패전과 점령으로 미국의 영향이 큼(10), 제국주의의 준비증강(15), 전시증강에 사회사업 결합(19)	전쟁	
사회관계 불균형(9), 인간사회의 구조 안에서 벌어진 문제(13), 사회병리 현상(13), 현실은 하위 가치의 복합(13),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13), 자본주의의 사회적 제 문제(14), 빈곤화법칙과 현대 사회사업(14), 생활문제의 사회적 중요성(15), 실질적이고 사회적 평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음(21)	사회병리	
일상적 생활문제(13), 인간의 협동 사회적 고유성 추구(17), 중범위적(가족/지역/지방자치) 생활과 상황 파악(22), 가족/지역 및 생활양식이 생활 지탱장치를 퇴화시킴(24), 역사적/사회적/실천적 존재인 국민의 생활(25)	국민 생활 특성	

<p>새로운 빈곤 등장(1970년대)(15), 정부 중심의 경제갱생운동(18), 국가 독점자본주의와 사회사업 행·재정(14), 인플레이션과 사회사업(14), 고도성장과 사회복지(15), 60-70년대 경제적 격변에 적절히 대처 못함(22), 경제성장은 사회문제 양상의 변화 초래(24), 저 경제성장/인구고령화가 복지 위기(27)</p>	<p>경제변동</p>	
<p>전환의 시대 강조(1), 분업에 의한 연대(8),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11), 전환기에서 사회사업 교육과제(13), 라이프사이클 계획과 커뮤니티 케어(14), 사회사업이론의 현대적 과제(14), 사회복지 개념의 혼란(14), 2차대전 후 사회사업의 급증(14), 자조/상호부조와 시장복지(24), 전후 사회복지정책/제도의 패러다임 전환(26), 사회복지의 공민관계 제고(26), 패러다임 전환은 경제성장/국민생활 향상/가족구조 변화/니드 다양화/가치관 변화/국제적 동향/사회보장제도의 충실에 의함(26), 사회복지운동이 신정책론이 됨(26), 시정촌 단위의 자치분권형/지역형 사회복지 등장(21세기)(26),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행정(26), 국가의 지역 특수성/고유성 인식(26), 자치단체와 국가사업의 차이 강조(26), 복지관계 8법 개정으로 분권화/다원화/지역화/탈규제화(1990년대)(26), 선진국형 복지국가는 어렵게 됨(재정부담/공공섹터 규모 확장/관료제화/과잉규제)(27), 세기 전환기의 체제 위기와 이노베이션(27), 체제변환과 패러다임 쉬프트(지역복지형 정책 목표에 관하여)(27)</p>	<p>전환</p>	<p>패러다임 변화</p>
<p>지방 공공단체의 공영 사회사업(임의 사회사업)(4), 지역사회 책임 거론(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시책 대두(15), 지방자치단체의 혁신(15), 지방주의 실천으로써 지역복지(1980년대)(17), 국가/지방/지구 3단계 유기적 사회복지계획(17), 지역적 기능에 중점(19), 분권화와 지역화(26), 시정촌 자치형 사회복지(1980년대)(26)</p>	<p>지방화</p>	
<p>구호의 객관성/타당성 기반 강조(6), 공중의 복지 호호(6), 대상자 규정이 어려워 조사 필요(11), 학계와 현장의 밀접한 관계 필요(17)</p>	<p>합리성 대두</p>	
<p>사회사업가의 노동조합(10), 사회사업가 처우 열악함(10), 대상자를 위해서도 노동조건 필요(13), 사회사업 노동자의 조직화(14), 전국민간 사회복지노동조합연합회 결성(1971년)(15)</p>	<p>사회복지사 권익 강화</p>	
<p>국민의 정치적 참여권 확대와 함께 함(2), 정부기관의 조직 명칭 변함(2), 권리로써 사회복지정책 실현(13), 권리로써 사회복지(15)</p>	<p>참여권 확대</p>	
<p>반부권적 사회체제 동요(14), 민주주의적 국민역량 향상(1970년대)(15), 일본인의 의식구조와 사회복지의 저조성 연관성 주장(17), 권위주의와 사회주의 경향이 연구 장애(17), 사회복지 현실은 민주주의 역량과 수준에 비례(24)</p>	<p>국민 의식화</p>	
<p>시대사조의 변천(1), 인도주의적 구제(6), 사회주의적 사회개량(6), 재래 불교/유교가 결합한 윤리적 기저 구성(6), 사회주의운동과 결합(10),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유(12), 소셜워커도 노동임금자(13), 마르크스주의 영향 이론이 많음(13), 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14), 사회복지의 사회철학(14), 자본의 운동법칙과 사회사업(14), 사회복지학의 운동론적 지향(14), 복지국가의 이념과 과제(14), 역사사회적 입장 결여(14),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 수탈과 제국주의적 대외 진출(15), 온정주의가 데모크라시원리 장애물(17), 자본주의에 半부권적 권력구조 유리(17), 자본주의 형성기의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한 자조론(21), 중국 전래의 덕치주의적인 유교사상에 기인(21), 전후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와 미국적 데모크라시의 2대 풍조를 이룸(25), 전환기의 사회인식 구분(내이절나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커뮤니티라이제이션)(26), 복지다원주의가 전개됨(26)</p>	<p>시대사조</p>	<p>의식 변화</p>

공무원 인적 구성 정비(6), 공무원 시험에 과목 포함(11), 지방자치체의 단독 사회복지사업(26)	정부의 체계 구축	
사회제도 결함(9), 재분배제도의 장애물(17), 권위적 관료주의 잔존(17), 지역사회 민간활동 강조(17), 사회복지정책이 도시노동자 중심(18), 정부는 농촌 지배를 강화(지배적 지주층을 지도자로 양성)(18), 일본 파시즘과 수행사업(21), 사회복지 개혁의 문제점(22), 유료복지(24), 臨調 ‘行革’ 비관(24), 생존권보장은 화폐관계가 아님을 강조(24), 사회복지개혁이 제대로 안 됨(24), 지배계급의 정책에 의한 파악(24), 공적 개호보험 구상의 쟁점(26),	정부의 역기능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사회복지정책(14), 고복지 고부담(15), 국민복지를 경시하는 경제성장(17), 사회복지문제는 생활문제(25), 광역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지역복지화)(26), 고복지 구실로 경제성장을 위한 개악 강행(15), 사회복지를 민주주의 압살의 수단화(15), 지배층의 편의주의(17), 봉건제를 기반한 관료주의(17), 농업자의 연금제도문제(18), 국가의 무분별한 시책화(19), 정부재정의 어려움이 장애가 됨(21), 민주주의 억제나 변질로 초래된 것이 많음(24), 경제성장 후 노동자의 전문성을 존중한 것처럼 가장됨(24), 국가보조금 삭감(복지개혁)(26)	정부의 압박	정부의 대처
국가의 강제 사회사업(4), 자본주의 사회실상에서 사회사업기관 필요성 강조(4), 사회정책은 경제장애 방위(4), 사회사업은 경제 이외의 장애 방위(4), 근대 이전의 상호부조에 중점을 둔 일본형 복지사회론(21)	정부의 회유	

· () 안 숫자는 원자료 정리 순서로 연구자를 표시함.

(3) 사회복지학 형성

이 연구에서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표 2>처럼 ‘사회복지 가치’를 포함해 총 9개 범주로 형성되었다. 이들 범주는 기본 자료로부터 도출된 총 671개 개념 중 459개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²⁹⁾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느 사회복지학 저술의 차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표 2>에 나타난 범주와 개념 역시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 개념’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나아가 사회복지지는 역사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변화해왔음을 드러내고 있다.³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범주 ‘사회복지 연구’에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비판이 엮보이는 것은 195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연구자들 간 논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일본에 사회복지학이 저술로 처음 소개된 것은 生江孝之의 『社會事業綱要』이다.³¹⁾ 이 책에서는 사회사업의 정의를 비롯하여 사회정책과 관계, 빈곤문제, 일본의 사회사업을 소개하고, 각론에서 구빈사업, 의료보호사업, 경제보호사업, 사회교화사업(인보와 학교 및 교회를 통

29) 개념들의 수가 많아 표로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였다. 예컨대 앞의 <표 2>의 ‘사회복지학 형성 영역’에서처럼 ‘사회복지 개념’ 범주에 속한 개념 묶음 ‘사회복지 개념’에는 “사회사업과 사회정책 관계 규명”(1), “사회병의 근원은 빈곤”(2), “사회복지의 인간상”(26)을 포함해 총 59개 개념들이 전체 연구자 26명의 저술로부터 고루 추출되었다.

30) 개념의 ()안 숫자에서 6번(1950년)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나오고, 대체로 8번까지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19번(1984년)에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연구자가 일본 사회복지의 전전·전중·전후의 궤적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31) 吉田久一(1995: 214)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중 사회사업에 앞선 留岡幸助의 『慈善問題』와 井上友一의 『救濟制度要義』를 강조하였다.

한 문화운동), 아동보호사업을 다루었다. 이후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2차대전 이후 정책과 실천으로, 정책과 실천과 경영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발전해왔다. 예컨대金子光一(2005: 218-219)는 일본 사회복지의 사회사업으로 시작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쟁 전 사회사업의 이론화에 공헌한 인물로 生江孝之, 渡辺海旭, 矢吹慶輝, 大河内一男을 꼽았고, 전후의 사회사업의 이론화에 공헌한 대표적인 인물로 竹内愛二, 岡村重夫, 孝橋正一를 들었다.

특히 일본의 연구자들은 사회복지학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는데 그 논의의 주류는 정책론을 강조하는 연구자와 기술론을 강조하는 연구자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물론 “연구자 간 융화 부족”(17)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있었으나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분화를 시도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책론자 측과 기술론자 측은 각기 “사회사업 본질을 직업적 기술과 방법적 과정에서 모색함”(10), “정책가들의 실천성 간과”(25), “이론과 실천의 문제”(26), “미국의 소셜케이스워크 중심”(14), “경제학의 제 개념을 분석용구로 사회복지 구조를 해명한다고 비판”(16), “보충성과 사회복지운동”(17) 따위를 내세우며 “정책론과 기술론 대립”(13)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는 대립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생애학습과 복지”(22), “실천과 행정의 2분에서 복지경영 분야가 부상함”(23), “개호복지학의 필요성 강조(1993년)”(23)와 같은 개념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피하였다. 아울러 “정책과학과 임상과학의 대립은 환경변화로 사라짐”(27)과 같은 개념을 통해 사회복지학에 관한 활발했던 논의가 침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저술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0년간 발전해온 일본의 사회복지학 형성과정에서 연구자들의 개인 경험이나 사회복지 관련 사회 상황에서 권력과 지식의 관계가 작용한 점을 개괄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이들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일본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과정의 특성을 찾아 일본 사회복지학의 계보학적 특성을 이끌어내 낼 수 있다.

2)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과정의 계보학적 특성

(1)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사회복지학의 이분법적 형성

연구자의 서로 다른 개인 경험은 사회복지학을 형성해 가면서 점차 정책론과 기술론으로 양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사회복지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生江孝之는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감옥개발사업에 종사했고, 미국에 유학하고 돌아와 내무성에서 근무하며 일본의 사회복지를 세웠다. 한편 大河内一男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의 물론 사회정책에 관한 저술을 냈다. 이 같은 연구 경향은 이들로부터 배운 후배나 제자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 전자(生江孝之)는 기술론을, 후자(大河内一男)는 정책론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이와 같은 저술의 분위기가 발전하여 사회복지학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논쟁은 1950년대 초기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런 분위기가 과열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여부를 놓고 ‘장외’ 성격의 논쟁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학에 관한 논쟁에 기술론이나 실천론을 지향하는 연구자들은 정책론자들과 달리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실천 분야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으로 구분할 때 사회사업에 치

증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실천활동을 규명하는 연구 영역을 의미하였다. 이는 一番ヶ瀬康子(1998: 31-33)가 사회복지학이 대체로 1960년대 '실천학'의 성격을 띠었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당시 사회복지학을 구성하는 정책론, 기술론, 고유론, 운동론에서 정책론을 제외한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연구자들이 서로 정책론과 기술론이 각을 세워 대답하였는데, 이는 연구자들의 성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물론 이들 연구자의 성향은 자신들의 전공과 사회복지학을 연구할 무렵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嶋田啓一郎(1980)이 “연구자의 전력에 따라 관료 출신 연구자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비판적이더라도 편파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론자들은 실천 중심의 기술만으로 학문으로써 사회복지학을 형성할 수 없음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학을 정립하려고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사회복지학을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간주하였고, 이는 이후 기술론자들과 대답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로 大河内一男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자는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자들로 당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것은 일본에서나 외국에서 시기적으로 이른 때였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실천 쪽 연구자보다는 정책 쪽 연구자들이 더욱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천에 중점을 둔 미국보다 먼저 1930년 일본에서 사회사업학의 정립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海野幸徳, 1981: 19)³³⁾는 점으로 반증할 수 있다. 이후 연구자들은 이론과 실천, 정책학과 임상학, 정책론과 방법론 따위로 칭하나 대체로 정책론과 기술론으로 불리며 대답을 이뤄왔다. 특히 이때 사회정책과 사회사업,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와 같은 주제들로 논의의 장을 만들었고, 사회복지학의 영역과 방법들을 정립하고 확장해 나갔다.

(2) 선교사 활동과 사회복지 전개

비록 사회복지학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生江孝之, 欠吹慶輝, 海野幸徳 등의 저술을 시점으로 꼽는다면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마땅하다. 즉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주도하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협력하여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사회복지사업들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노력은 미국에서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竹内愛二가 『専門社會事業研究』를 낸 195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欠吹慶輝가 불교와 관련해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이들 연구자는 기독교의 영향이 컸고, 기독교의 영향은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은 吉田久一가 “일본의 불교가 근대 일본의 역사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적인 것과 결부하지 못했다.”(岡田藤太郎, 1968: 150)고 강조한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영향은 당시 미국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구제·구호 사업이 이후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 활동에 일본인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실제로 谷川貞夫(1984)는 아시아구제연맹(LARA)의 일본 활동에 참여하며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밝혔다.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물질적 지원에서 정신적 변화에 중점을 두면서 본격적으로 과학화가 요구되었고,

32) 이는 “사회복지에 관한 정의가 정의를 내리는 자들의 지식과 가치기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Ambrosino, Heffernan, Shuttlesworth, Ambrosino, 2001: 5)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33) 海野幸徳의 『社會事業學原理』는 1930년에 출판되었으나 1981에 吉田久一과 一番ヶ瀬康子が 대표 편집자가 되어 ‘社會福祉古典總書’(東京: 鳳書院)로 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를 규정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근거로 이후 일본의 사회복지학이나 실천론(기술론)이 미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이식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요컨대 일본의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일본 당국과 미국의 선교 인력이 함께 개입하면서 미국의 사회사업 영향을 받아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발전을 꾀하였다.

한편 연구자들 중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일본 국내보다는 외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예컨대 吉田久一(2004: 7)은 “일본 사회복지학의 바탕이 되는 일본의 사회복지지는 스스로 이룩한 경험이 없고, 메이지(明治) 이전에는 중국과 한국에서 온 유교적 구제사상, 인도와 중국에서는 불교의 자선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메이지 이후에는 독일과 영국, 다이쇼(大正) 이후에는 미국, 쇼와(昭和)시대의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과 북구에서 모델을 구했다.”고 비판했다.

(3) 사회복지 본질 찾기와 연구자계보 형성

일본에서 사회복지가 전개되면서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다. 그 시기를 전쟁 및 경제의 고도성장과 침체를 보인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로 잡을 수 있다. 이 같은 시기에도 사회복지학에 관한 일본 연구자들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사회복지학 연구자들의 계보를 형성하였다. 이것이 전쟁이나 경제 상황이 국민의 사회복지와 밀접히 관련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요컨대 일본 사회복지학 형성은 15년 전쟁, 급속한 경제변동, 지속적인 논쟁과 같은 매우 독특한 환경 속에서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을 마치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한 논쟁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다시 침체한 1980년대까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논쟁은 연구자가 지닌 개인 경험과 사회 상황으로 시대사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전공과 활동은 물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기독교사상, 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가 뒷받침했다. 대표적인 계보로 孝橋正一, 岡村重夫, 竹内愛二을 꼽을 수 있고, 이들은 소위 孝橋이론, 岡村이론, 竹内이론을 세웠다.

이렇게 혼란기에 사회복지학에 관한 논쟁이 지루할 정도로 이루어진 것은 사회복지학이 실천학문으로써 빈곤문제와 밀접히 관련하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회복지학 연구자는 국민의 생활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시기이나 패전 후로나 경제의 부침에 따라 사회복지학에 관한 논쟁이 함께 부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격렬히 지속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牧賢一은 전쟁 시기에 정부는 전쟁에 참여할 국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인적 자원론을 강조하였고(牧賢一·谷川貞夫, 1941: 191), 이후 谷川貞夫(1984)는 전시증강에 사회사업에 결합했음을 비판하였다. 요컨대 국민의 생활과 뗄 수 없는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학은 이처럼 국가의 혼란기를 맞아 연구자들의 논쟁을 이끌어감으로써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특히 패전 후 일본은 GHQ(연합국총사령부)의 지배 아래 미국의 압력을 받아 민주적 사회개혁을 이루면서 사회복지의 기초를 형성하였고(박광준, 1996:195), 미국 사회사업(사회복지)의 도입이 지배적이었다(住谷磐, 1980: 187).

(4) 전쟁 수행 및 경제의 부침과 사회복지의 굴곡

일본의 사회복지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복지 관련 사회 상황으로 전쟁과 경제의 부침을 뺄 수

었다. 실제로 일본은 전쟁을 한창 치르던 1938년 '주민건강보험법'과 '사회사업법'을 제정·실시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한편으로는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전쟁은 국가안보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승격시키는데,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라는 공동체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목적에 종속시키는 것이다."(김동춘, 2006: 248)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을 마감한 직후 급증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대처해야 했던 상황, 이후 급속한 경제부흥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확대가 가능했던 상황, 다시 경제가 침체한 상황 등이 사회복지의 굴곡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일본은 패전 후 주로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어 최소한 1970년대 말 이전까지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하여 1990년대 초 석유 파동과 함께 경제의 침체를 맞이하였다. 피어슨(Christopher Pierson)이 "전후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이례적인 좋은 상황에서만 경제와 복지국가 양자가 함께 확장될 수 있었다."(현외성·강욱모 역, 2007: 18)고 강조한 바처럼 당시 일본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사회복지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전략으로서 권력을 작동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례로 경제의 고도성장기에는 '복지3법' 체제에서 '복지6법' 체제로 확대되면서 빈곤방지 사회복지에 전개시킴으로써 사회복지 니드의 보편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반화를 지향하였다(三浦文夫, 2004: 44). 이후 경제가 침체하면서 결국 1993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공립보육원의 보모급여를 국고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의 '작은 정부'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변질을 완성시켰다."(眞田是, 1994: 20)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일본 사회복지의 변화는 결국 각 지방의 사회복지계획을 세우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일본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한 이후 침체하면서 맞이한 것이다.

(5) 사회복지 확대와 사회복지학의 비대화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의 주변 상황을 간과하지 않고 사회복지학의 분화를 피하며 학문의 발전을 일구었다. 이는 학문이 이상(理想)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실천학문으로써 사회복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론 연구자와 기술론 연구자로 구분했을 때 후자의 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사회복지 현실은 고령사회 진입, 국가 권력의 분권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복지학, 개호복지학, 복지경영, 생애학습과 복지 따위가 학문이나 하위 영역으로 성립할 정도로 사회복지학의 분화를 일으켰다. 물론 사회복지학의 하위 분야나 아니면 독립 분야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나, 이와 같은 일본 사회복지학의 분화는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변화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특히 대상자의 변화는 같은 욕구라고 하더라도 예전과 다른 현재의 상황이 사회복지의 분화를 더욱 촉진했을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확대된 사회복지의 주변을 접하며 사회복지학의 지식과 기술을 확장시켜 현실을 대응하며 하위분야나 독립분야를 분화시킨 것이다.³⁴⁾

일본의 사회복지지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부흥의 영향을 받아 확대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 침체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³⁵⁾ 이 시기에 사회복지학은 경제의 부침에 상관없이 꾸준히 발전하였는데, 특히 사회복지학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언급했듯 사회복지학은 실천학문으로써 경제가 부흥했을 때는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경제가 침체해서는 사회복지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어 사회복지학의 발전은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사회복지학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비록 사회복지가 “국가독점자본에 의해 드러난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수단”(高島進, 1973)이나 복지원년을 선언한 것을 “반복지(反福祉)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眞田是, 2005)이라고 비판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대거 확충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사회복지학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거론하며 강화하는 데 전력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실천학문으로써 정체성과 전문성을 고민하며 꾸준히 발전하였다. 이런 고민은, 특히 “대학에서 사회복지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맺은 임상성이 높은 교육을 제창했다.”(大橋謙策, 2004: 67)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5. 논의

푸코의 권력-지식관계에 근거한 계보학적 시각으로 일본 사회복지학이 형성된 과정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결과에서 드러난 것을 종합하면 일본의 사회복지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연구자들 간 활발한 논쟁을 통해 사회복지의 체계화와 과학화를 피하며 사회복지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을 이룩하였다. 이 같은 학문적 발전은 연구자들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권력-지식관계가 작용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푸코가 강조하는 권력이 ‘독점적 배타적 측면’이 아니고 ‘확산적 상호 의존적 측면’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³⁶⁾

나아가 우리 연구자들은 일본의 사회복지학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책론’과 ‘기술론’의 양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하위 영역이나 독립 영역으로서 지역복지학, 개호복지학, 복지 경영, 생애학습과 복지 따위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980년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연구자들 간 논쟁이 수그러지면서 사회복지학의 하위 영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전과 같이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의 참여가 약해진 반면 실천분야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내세울 만한 논쟁이 없이

34) 미국에서는 1800년대의 빈곤에 공식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직으로써 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사회복지사들은 1920년대에 들어와 심리학과 사회기능에 관한 지식의 확장으로 빈곤 문제에서 떨어져 나왔다(Johnson and Schwartz, 1994: 74).

35) 이처럼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급변함을 미국의 연구자들도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Ambrosino, Heffernan, Shuttlesworth, Ambrosino, 2001: 4).

36) 권력의 개념 및 작용 과정은 한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저항이 있음에도 그 저항을 배제하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능력이라는 독점적 배타적 측면과 저항보다는 타자와의 의존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확산적 상호 의존적 측면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송복, 1991: 183 재정리).

사회복지학의 저변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가 확대 및 세분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학의 또 다른 어떤 하위 분야가 나타날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실천영역의 연구자들이 주도하여 사회복지학의 종합화와 복합화만을 강조한다면 학문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³⁷⁾ 예컨대 塩野谷祐一(박영일 옮김, 2006: 529)가 반가치적 이념으로서 강조하는 ‘일본의 패거리 문화’ 속에서 특정 연구자들에 의한 사회복지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사회복지학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정책론 분야의 연구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들 연구자가 사회복지학의 한 부분만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복지학의 전체를 조망해 논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학이라는 전체 그림을 놓고 여기에서 특정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이 실천학문으로써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실천은 역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론적 논의가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논문보다는 사회복지학을 망라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의 전쟁기를 “만주사변, 지나사변을 거쳐 ‘동양’의 정신문명과 ‘서양’의 물질문명을 종합하여 ‘동양의 신질서 건설’을 달성한다고 하는 원대한 아시아주의의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던 것”(이강민 옮김, 2007: 45)이라고 묘사한 점에서 당시 일본 정부는 전략적으로 사회복지에 권력을 작동시켰을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의 작용은 ‘복지국가가 아닌 “일본형 복지사회’는 일본에 ‘고유한 독자적’ 문화와 그것을 지탱하는 가족·지역·기업·국민의 공동체라는 이념에 근거한 상호부조 시스템에 근거한다.”(임성모·김경원 옮김, 2004: 84)는 지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³⁸⁾

일본의 연구자들은 정책론과 기술론으로 나뉘어 사회복지학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루한 논쟁에 빠지기도 했으나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기반을 튼튼히 세웠다. 지금은 이 같이 치열한 논쟁은 사라지고 실천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학의 하위 분야는 사회복지학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의 발전 여부는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학의 저변을 확대하거나 하위 분야로 독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사회복지학의 확대나 독립이 자칫 사회복지학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복지학의 영역을 계속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타 전문 분야를 침입하는 것은 아닌가?³⁹⁾ 사회복지학의 학제적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접 분야들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평의 확대나 독립이 과연 정당성을 띠는 것인가? 사회복지학의 종합화나 복합화 따위는 오히려 사회복지학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일본의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37)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이 타 전문영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이에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38)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형성·발전한 한국의 사회복지에 전략적으로 작용한 권력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학을 일본의 사회복지학과 비교하면서 한층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9) 실제로 일본에서는 개호복지사 자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의료, 보건과 같은 사회복지 주변 영역과 갈등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들 주변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기하였다.

참고문헌

- 김동춘. 2006. 『전쟁과 사회』 (개정판). 경기 과주: 한울.
- 문종길. 2001. “이성중심의 합리주의 사유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과 해체 전략”. 『역사와 사회』 27(3): 199-236.
- 박광준. 1996. “일본 사회복지사업 본질논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8:193-218.
- 박영일 옮김. 2006. 『경제와 윤리 : 복지국가의 철학』. 시오노야 유이치(塩野谷祐一) 저. 서울: 필맥.
- 서지원. 2005. “미셸 푸코의 계보학적 입장에서 본 공공미술관”. 『美學』 41:127-171.
- 송복. 1991. 『조직과 권력』. 서울: 나남.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강민 옮김. 2007. “사라지지 않는 ‘아시아’의 심상심리를 넘어서”. 강상중 저. 아오키 다모쓰·강상중·고스기 야스시·사카모토 히로코·모방푸·야마무로 신이치·요시미 순야·요모타 이누히코 엮음. 『공간 : 아시아를 묻는다』. 경기 과주: 한울.
- 이광래. 1990.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서울: 민음사.
- 임성모·김경원 옮김. 2004. 『세계화의 원근법』. 강상중·요시미 순야(吉見俊哉) 저. 서울: 도서출판 이산.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나무.
- 차태서. 2007. 『은폐된 혁명』. 경기 과주: 한국학술정보.
- 한점돌. 2000. “주요섭 소설의 계보학적 고찰”. 『국어교육』 103: 341-371.
- 현외성·강욱모 역. 2007. 『전환기의 복지국가』. Christopher Pierson, *Beyond the Welfare*. 경기 과주: 학현사.
- 谷川貞夫. 1984. 『社會福祉序説-戰前, 戰中, 戰後の軌跡』. 東京: 全國社會福祉協議會.
- 所道彦. 2005. “外國研究・國際比較研究”. 岩田正美・小林良二・中谷陽明・稻葉昭英 編. 『社會福祉研究方法』. 東京: 有斐閣.
- 船曳宏保. 1993. 『社會福祉學の構想』. 東京: 新評論.
- 古川孝順. 1994. 『社會福祉學序説』. 東京: 有斐閣.
- 古川孝順. 2004. 『社會福祉學の方法』. 東京: 有斐閣.
- 一番ヶ瀬康子. 1994. 『社會福祉の歴史研究』. 東京: 労働旬報社.
- 一番ヶ瀬康子. 1998. “戰後 社會福祉教育の五十年”. 日本社會事業學校聯盟 編. 『戰後社會福祉教育の50年』. 京都: Minerva書房.
- 一番ヶ瀬康子. 2004. “社會福祉研究の展開と展望”. 日本社會福祉學會 編. 『社會福祉學研究の50年』. 京都: Minerva書房.
- 池田敬正. 1986. 『日本社會福祉史』. 京都: 法律文化社.
- 金子光一. 2005. 『社會福祉のあゆみ』. 東京: 有斐閣.
- 孝橋正一. 1957. 『社會事業の 基本問題』. 京都: Minerva書房.
- 孝橋正一. 1972. 『續・社會事業の 基本問題』. 京都: Minerva書房.
- 牧賢一·谷川貞夫. 1941. 『現代社會事業要論』. 東京: 常磐書房.
- 松井二郎. 1992. 『社會福祉理論の再檢討』. 京都: Minerva書房.
- 三浦文夫. 1974. “社會保障と社會福祉”. 三浦文夫 編. 『社會福祉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三浦文夫. 2004. “戦後社會福祉の政策研究の總括”. 日本社會福祉學會 編. 『社會福祉學研究の50年』. 京都: Minerva書房.
- 室田保夫. 2003. “序章 社會福祉の歴史お學ぶ”. 菊池正治・清水教恵・田中和男・永岡正己・室田保夫 編. 『日本社會福祉の歴史』. 京都: Minerva書房.
- 室田保夫. 2006. 『人物でよむ近代日本社會福祉のあゆみ』. 京都: Minerva書房.
- 住谷啓. 1980. “第7章 社會福祉の日本的性格”. 嶋田啓一郎 編. 『社會福祉の思想と理論』. 京都: Minerva書房.
- 大橋謙策. 2004. “‘綜合科學’としての社會福祉學研究と地域福祉の時代”. 日本社會福祉學會編. 『社會福祉學研究の50年』. 京都: Minerva書房.
- 大貫隆史. 2006. “系譜學と訓詁學”. 大橋洋一 編. 『現代批評理論のすべて』. 東京: 新書館.
- 岡村重夫. 1968. 『社會福祉學總論』. 東京: 柴田書店.
- 岡田藤太郎. 1968. 『現代社會福祉學入門』. 名古屋: 黎明書房.
- 岡田藤太郎. 1977. 『社會福祉とソーシャルワーク探究』. 京都: ルガル社.
- 朴貞蘭. 2007. 『韓國社會事業史』. 京都: Minerva書房.
- 嶋田啓一郎. 1980. 『社會福祉體系論』. 京都: Minerva書房.
- 彬田敦. 1998. 『權力の系譜學』. 東京: 岩波書店.
- 桑田禮彰. 1997. 『フーコーの系譜學』. 東京: 講談社.
- 眞田是. 1994. 『現代の社會福祉理論』. 東京: 労働旬報社.
- 高島進. 1973. 『現代の社會福祉理論』. 京都: Minerva書房.
- 海野幸徳. 1981. 『社會事業學原理』. 東京: 鳳書院.
- 山口正. 1934. 『社會事業研究』. 東京: 日本評論社.
- 吉田久一. 2004. 『新・日本社會事業の歴史』. 東京: 勁草書房.
- 吉田久一. 1995. 『日本社會福祉論史』. 東京: 勁草書房.
- Ambrosino, Rosalie, Heffernan, Joseph, Shuttlesworth, Guy, Ambrosino, Robert. 2001.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Belmont: Wadsworth/Thomson Learning.
- Johnson, Louise C., Schwartz, Charles L.. 1994. *Social Welfare: A Response to Human Need*. Boston: Allyn and Bacon.
- May, Todd. 1995. *Between Genealogy and Epistemology*.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mart, Barry. 1985. *Michel Foucault*. Sussex: Ellis Horwood Limited.

A Study on the Formation of Japanese Social Welfare Studies

- focused on writings of Social Welfare Studies and Genealogical Perspective -

Choi, Okcha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uroki, Yasuhiro

(Doshish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 of Japanese Social Welfare Studies based on Michel Foucault's Genealogical perspective related with power-knowledge relationships. Namely, this study reveals that Japanese Social Welfare Studies has been built through interactions of power-knowledge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scholars' individual experience and social circumstances.

For the study, 40 literary works of Japanese Social Welfare Studies written by 26 authors have been selected to construct the resourceful main data. From the main data, 671 concepts have been abstracted and shortly introduced in 3 parts: authors' individual experiences, social circumstances related with Social Welfare Studies, and composed contents of Social Welfare Studies.

The resulted Genealogy of Japanese Social Welfare Studies from the categorization is emerged and analyzed as follows: 1) scholars' individual experience and dichotomous formation of Social Welfare Studies, 2) missionary's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3) searching essence of social welfare and formation of scholars' genealogy, 4) prosecution of wars including ups and downs of economy and social welfare, and 5) expansion of social welfare and enlarging of Social Welfare studies.

Key words: Social Welfare Studies, Genealogical perspective, power-knowledge relationships, writings

[논문 접수일 : 09. 05. 22 심사일: 09. 06. 11 게재 확정일 : 09. 07. 21]